

투데이 칼럼

6·13 지방선거 꼼꼼히 챙겨야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일부터 사전투표에 들어갔다. 이번 6·13 선거의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책대결보다 인신 공격 위주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관련 대형 이슈가 이어지고 뚜렷한 정책대결도 찾아보기 어려워,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듯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적 선거운동은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하여 각 후보들은 일제히 13일간의 열띤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정당도 선거제도로 전환해 총력활동에 들어갔다. 6·13 지방선거는 지역살림과 교육을 맡을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다.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을 비롯하여 각급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들을 뽑는다. 유권자의 일상과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걸린 만큼 후보의 공약과 면면을 꼼꼼히 살펴 선택해야 한다.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이구동성으로 회자되는 공명선거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후보자는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등 각자의 위치에서 법의 테두리 내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유권자와 후보자는 관련법령에 대한 사전 충분한 숙지를 통해 불법적 행위로 인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의외로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반드시 투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4

년 지방선거 때의 15%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선거의 관세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보도 내용을 볼 때 현재까지 주요 지역 관세는 민주당 우세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선거를 살펴보면 어떤 선거는 일방적인 결과는 없다. '병화 대 반평화' 플레임을 내건 여당 이른 '담권 중간평가'를 앞세운 야당이든 지방분권과 생활정치 취지를 살려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접근하면 이번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낳은 국민의 주권인식을 확인하는 정치행사라 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로 뽑히는 이들이 하는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보다는 동네 살림살이 행거기에 가깝다. 단 체장, 즉 군수·구청장·시장·도지사 등에게는 결정권이 있다. 한해 쓰는 예산이란 이름이 붙은 수조원의 돈을 집행하고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이런 단체장을 감시하는 게 지방의원의 일이다. 자치단체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짚어보고, 단체장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교육감의 업무도 중요하다. 모든 가정의 관심사인 교육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 같은 민감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 또 수천억, 수조 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교직원에 대한 인사도 한다. 정치가 혼탁하고 무능력하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유권자의 몫이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깊은 관심으로 후보와 정당을 살펴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고재훈 칼럼니스트

사설

전북도의 말 산업 특구 지정 도전

전북도가 말 산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올해 2018년도의 말 산업 특구 신규 지정에 적극 참여했다. 전북도가 밝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까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제 4호 말 산업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달 8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전북도가 응모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 이례가 알려진 것이다.

전북도의 말 산업 특구 지정 공모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다. 전북도는 말 산업과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확인된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북도의 경우는 그 그림이 광대하다. 익산시와 김제시를 포함하여 완주군과 진안군과 장수군을 연계하는 말 산업 특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

산업특구 지정 공모에 도전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도내에는 21개소의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3개소의 공공승마장을 더 건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수군의 말 산업은 그 역사가 오래이기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다. 그에 더하여 장수군은 총사업비 218억 원을 투입해, 승마레저체험촌과 포니랜드와 승마힐링센터 등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전북도의 말 산업 특구 지정 도전은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는 기대이다. 전문인력양성이 절실한 이때, 전주기전대학은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재활승마센터로 이미 선정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심사를 할 거라는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좋겠다. 선정이 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국비 50억 원이 지원돼 말 산업 인프라 구축에 큰 진전이 있을 터이다.

소외된 발전 현안에도 주목해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소외된 현안에도 눈길을 주어야겠다. 예산 확보를 위해 오랜 시간을 두고 논리 강화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오래 소외된 채로 있는데 이것은 도민들이 버리는 바가 전혀 아니다.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건의 해보고 안 되면 뒤로 물러나기 과연 몇 번이겠는가. 지난 날 여러 번 주문했던 것을 여기 또 반복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무슨 현안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리라는 새만큼 사업과 탄소산업과 식품 클러스터 사업들을 보이도 그렇다. 전북도가 수년전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미덥지 않다. 정부가 후속책을 내놓으며 잔걸음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아직은 턱담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언론 플레이 정도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 턱없이 못미치니 하는 말

이다. 전북도는 소외된 발전 현안 사업에도 힘을 쏟아야겠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온전히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 발전의 주목적은 지역 경제와 살림살이의 발전이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큰 데 매년 그 에 못 미치니 유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체크 할 것은 미리 체크 해둬야 한다. 그동안 소외된 발전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안사업소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했던 말을 거듭 하거나 전북도의 책임은 막중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서러면 국책 사업 그에 못지 않게 소외된 현안사업들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끈덕지게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도민들은 전북도에 기대하는 것이 크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고심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독자재언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사회적 해결책 모색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노인학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은 물론 정신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가혹 행위 및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는 2016년 4200여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신체·정서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체 노인학대 사건 중 요양원 등 시설에서 행해진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지고 가해자 역시 80% 이상이 가족이라는 사실은 씁쓸함을 더한다. 이런 사실로 대부분의 노인학대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탓을 하거나 혹시나 내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커 신고율은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학대는 '잊힌 가정폭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최근에는 노인이 된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老老)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대 이유야 여러 가지 이겠지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자신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면서 겪는 신체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 학대의 주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여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노인 복지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해결책도 고심해봐야 한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패륜아'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저버린 사람, 패륜아. 그만큼 노인학대는 심각한 범죄이고 사회문제이다. 오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계기로 하루빨리 노인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 김소정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일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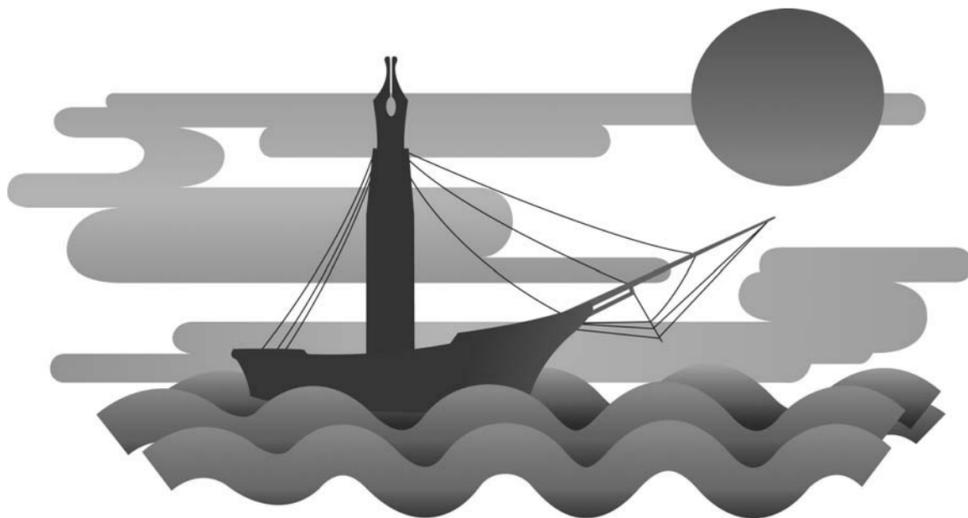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 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